

보 도 자 료

KCGI, DB하이텍에 회계장부열람 및 이사회이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제기

* 배포일자 : 2023. 6. 13.

- DB하이텍(이하 "DBHTK")은 KCGI가 주주서한을 공개한 후 뒤늦게 KCGI의 자료 요청에 응답하였으나, 구태의연한 경영행태에 대한 형식적인 변명뿐이었고 주요 사항에 대한 응답은 회피
 - KCGI는 DBHTK 경영진의 주주와 소통에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에 실망, 기업가치 훼손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 이에 KCGI는 자료 은닉 및 폐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및 이사회이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주주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형태의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
1. KCGI는 2023. 6. 9. 투자목적회사(SPC) (유)캐로피홀딩스(이하 "캐로피홀딩스")를 통해 DBHTK에게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이사회이사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는 가처분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2. KCGI는 지난 2023. 5. 4.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DBHTK과 관련된 내용 설명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DBHTK은 2023. 5. 12. 자료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KCGI의 구체적인 자료 준비 일정 회신 및 주주협의 재요청에 대하여는 KCGI가 요청한 답변 시한인 2023. 5. 26. 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주주서한이 공개되고 난 이후인 2023. 6. 7. 비로소 KCGI의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을 보내왔지만 그 내용은 자료와 증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자기변명적 설명에 불과하였습니다.
 3. KCGI는 DBHTK이 무엇인가를 감추거나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온적이고 회피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주주로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해소되지 않는 우려스러운 사유들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4. KCGI는 DBHTK의 협조를 마냥 기다리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DBHTK 경영진의 현재와 같은 경영 행태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DBHTK에게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결과가 되어 사실관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적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는 가처분 사건을 관할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5. KCGI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KCGI는 DBHTK이 김준기 창업회장 일가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① DBHTK이 자사주 매입과 물적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DB Inc.의 지주회사 전환을 피하고자 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대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② DBHTK이 사실상 지배주주 일가의 개인회사라 할 수 있는 계열회사와 진행한 약 66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가 지배주주 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③ DBHTK이 거액의 기부금을 김준기문화재단 등에게 지급한 것이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여 지배주주 일가를 지원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④ DBHTK은 2022년 김남호 회장과 김준기 창업회장에게 각각 37억원, 31억원을 보수로 지급하는 등 최근 두 사람에게 등기이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지배주주 일가라는 이유로 너무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DBHTK이 차마 언급하기도 민망한 범죄를 저질렀던 창업회장을 미등기임원으로 재직시키면서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여 임직원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가로채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나) KCGI는 DBHTK이 불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① DBHTK은 DB메탈의 유상증자 및 구주매매에 참여하여 DB메탈 주식을 취득한 직후 바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DBHTK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해 DB메탈이 기업가치를 유지하는 편이 당사가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 및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이 아닌 DBHTK 주주의 이익을 가장 우선해야 함에도 해당 의사결정으로 DB그룹 즉 지배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DBHTK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사 자원을 낭비함으로써 일반주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만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성이 시급합니다.

- ② DBHTK이 DB월드 지분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여 이익을 수취할 수 있음에도 옵션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DB Inc.의 이익만을 생각한 잘못된 경영 의사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③ DBHTK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83억원의 법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 등 별다른 대응 없이 단순 납부처리로 종결한 것은 그 원인파악과 해결 방안 제시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경영 확립 및 내부통제 확보가 필요합니다.
- ④ DBHTK의 2022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내부거래와 직결된 항목인만큼 지출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⑤ DBHTK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우수한 조건의 타 금융회사 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선택한 것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⑥ DBHTK이 DB Inc.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부거래 관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⑦ DBHTK이 미등기 임원인 김준기 창업회장 일가에게만 높은 보수를 지급한 만큼 보수 지급 기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KCGI는 DBHTK이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① DBHTK은 2022.9.26. 진행 중이던 분사 작업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공시하였으나,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들과의 일절 소

통 없이 급하게 안건을 상정하고 팍리스 자회사 DB글로벌칩의 물적분할을 단행한만큼 지배주주일가 및 경영진이 일반주주들을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등 주주권 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② DBHTK는 가장 기초적인 IR 활동조차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경시하고 나아가 책임 경영에 대한 인식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위와 같이 회사에 대한 일련의 부적절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사항들에 관하여 KCGI는 주주로서 DBHTK의 기업가치 훼손 방지와 제고 가능성의 모색, 지속가능 경영 및 주주이익 증대를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검토 및 파악한 뒤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위에서 언급된 해당 업무들을 주도했고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DBHTK 경영진과 만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KCGI는 DBHTK 경영진이 회사의 발전과 그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당사의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래 들어 그룹 모회사 DB Inc.와 DB메탈 간의 합병에 관한 풍문이 도는 등 DB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KCGI는 주주로서 DBHTK의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DBHTK의 지속가능경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를 위해 어떠한 유형의 대응도 가리지 않고 수행할 계획입니다.